

빅데이터 응용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는 '지속가능 빅데이터 신산업 선도인력 교육연구단'이 BK21 4단계 사업에 선정됐다.



전재산을 우리대학에 기부한 김복순 할머니의 뒤늦은 부고를 전한다.

2020년 11월 16일 월요일

대학주보

학생총투표 시작 “방역도 지키겠다”

이태영 기자 ysmhip6@knu.ac.kr
김창호 기자 k_c_hoxx@knu.ac.kr

양 캠퍼스 학생총투표의 공식 일정이 시작됐다. 이번 학생총투표에서는 양 캠퍼스 종학생회장단, 단과대학 학생회장단, 특별대표기구 회장단, 각 전공·학과별 학생회장단에 대한 선출이 이루어지며 국제캠퍼스(국제캠)의 경우 밝은사회장학 세칙 개정에 대한 총투표도 함께 이루어진다.

서울캠퍼스(서울캠) 학생총투표는 현장투표와 온라인 비대면 투표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장투표소는 ▲한의과대 ▲경영대 ▲무용대 ▲미술대 ▲생활과학대 ▲음악대 ▲청운관 ▲치과대 ▲행복기숙사 아름원 ▲호텔관광대 등 총 13곳에 마련되며, 온라인 비대면 투표는 '서울캠 온라인 선거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진다. 국제캠 학생총투표는 온라인 비대면 투표로만 진행된다. 온라인 비대면 투표는 국제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가 마련한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양 캠퍼스 중선관위가 온라인 비대면 투표 도입을 결정한 배경에는 코로나19와 이에 따른 학사 운영 상황에 대한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은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캠 온라인 선거운동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유튜브 등 사전에 지정된 매체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오프라인 선거운동은 방역 지침의 철저한 준수 하에 예년과 같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캠 중선관위는 안전한 오프라인 선거운동을 위한 중선관위 차원의 방역관리위원회를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캠 온라인 선거운동은 국제캠 중선관위가 마련한 '학생 총투표 홈페이지'와 학과·학년별 단체 카카오톡방을 통한 '단톡방 선거유세'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며, 오프라인 선거운동은 코로나 안전수칙 준수 하

에 진행될 예정이다. 국제캠 중선관위는 대학본부 코로나19 종합상황실과의 협의를 통해 '비밀차단 검증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오프라인 선거운동을 위한 안전수칙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캠 후보자 정책토론회는 선거운동 기간 중 2회 가량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온라인으로는 후보자와 유권자 사이의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제캠 후보자 정책 공청회는 선거단위별로 후보 간 협의에 따라 진행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캠의 후보추천 및 후보등록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다. 선거운동 기간은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진행된다. 투표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진행되지만, 투표율이 50%에 못 미칠 경우 투표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국제캠의 후보추천 및 후보등록은 9일부터 15일까지, 후보등록 후 선거준비기간은 16일과 17일 양일간 이루어지며 선거운동은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진행된다. 투표는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진행되지만, 서울캠과 마찬가지로 투표율이 50%에 못 미칠 경우 투표기간은 연장된다.

최초로 이루어지는 온·오프라인

병행 선거를 앞두고 최인성 서울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생물학 2016)은 "2021년 학생사회를 책임질 사람들을 뽑는 만큼 많은 학우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성민 국제캠 중선관위원장(원자력공학 2015)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진행되는 학생총투표에 대해 "선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의 안전"이라며 "중선관위는 후보자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코로나19 종합상황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성원들의 안전보장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양 캠퍼스 학생대표단은 2021년 1



2021 양 캠퍼스 학생총투표

※ 투표율 50% 미달 시 연장투표 돌입



이송 서울성심병원장 총동문회장에 선출

김수혁 기자 sherk@knu.ac.kr

해 최용원(경영 85) 동문과 안철현(법학 88) 동문이 총동문회 감사로 선출됐다.

이송 신임 총동문회장은 현재 청량리 서울성심병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대한병원협회 정책부회장, 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 가야대학교 이사장, 의대 동문회장 등을 역임했다. 선거 당시 이 회장은 "화합하는 동문회! 소통하는 동문회!"를 구호 아래 총동문회 유튜브 채널 개설과 모바일 회보 발행

등을 통한 홍보 역량 증진, 지역 및 해외 동문회 결속 강화와 동문 교류행사 활성화 등을 공약했다. 10월 12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2년간 총동문회장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경희대 총동문회 정상화추진위원회'가 권오형(경영학 65) 전임 회장이 총동문회 조직을 사유화했다는 비판을 제기하는 등 총동문회는 내부 갈등으로 몸살을 앓기도 했다. 때문에 이 회장은 당선 이후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회계, 법률, 전산 등 전 영역에 걸친 점검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회장이 '화합'을 내걸고 당선된 만큼 신임 총동문회장으로서 내부 갈등 해소가 급선무일 것으로 보인다.